

만성 저나트륨혈증의 과도한 교정시 바소프레신의 투여를 통한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의 예방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내과*, 신장연구소, 내분비내과†

장지선 · 김성은 · 김현규[†] · 오지은* · 송영수* · 김수진* · 이영기* · 박태진* · 김은정* · 윤종우*

서론 : 만성 저나트륨혈증의 급속한 교정은 영구적인 뇌손상을 일으키는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정 속도를 적절히 (<0.5 mEq/L/hour)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. 그러나 때로 예기치 않게 저나트륨혈증이 과도하게 교정될 수 있는데, 이러한 경우 급속한 교정 직후 바소프레신을 투여하여 혈청 나트륨 농도를 다시 낮춤으로써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의 발생을 예방한 동물실험 결과 및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.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저나트륨혈증이 과도하게 교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바소프레신을 투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증례 : 5명의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이들 중 4명은 thiazide의 복용력이 있었고 1명은 쉬한 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. 이 환자들에서 초기 혈청 나트륨 농도는 109-118 mEq/L였으며, 증상 (구토, 의식장애)이 있는 중증의 저나트륨혈증으로 판단되어 모든 환자에게 3% saline이 투여되었다. 이후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혈청 나트륨 농도가 1.3-2.6 mEq/L/hr의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과도하게 교정되었다. 각 환자에게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바소프레신을 5-20 μ씩 투여하였고, 이후 혈청나트륨 농도는 4-12 mEq/L씩 저하되었다. 이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, 바소프레신 투여에 따른 약제의 부작용도 없었다.

결론 : 저나트륨혈증이 과도하게 교정되었을 때 바소프레신을 투여하여 혈청 나트륨농도를 다시 저하시키는 방법은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